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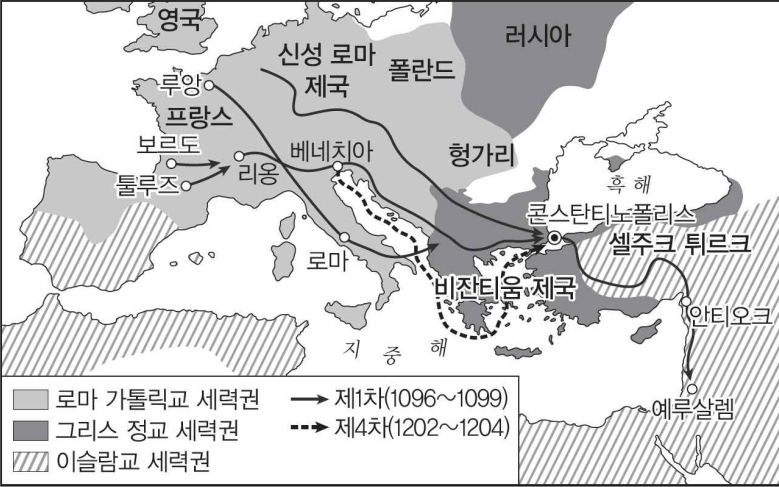
01 고대 문명	
문명	• 해양 청동기 문명 • 문명(크노소스 궁전) ⇨ 미케네 문명 ⇨ 인의 침입으로 멸망
02 고대 지중해 세계	
그리스의 폴리스 (기원전 10세기~)	• 폴리스(아고라·아크로폴리스, 헬레네스, 제전) • : 도리스인, 헤일로타이(예속 농민)·페리오이코이(반자유민, 농업과 상공업 등에 종사), 군사 통치 체제, 모든 남자 시민에게 집단생활과 군사 훈련 • 아테네의 정치 변화 ① 왕정 ⇨ 솔론의 금권정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僭主) 정치 ⇨ 의 개혁[부족제 개편(혈연 →),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는 귀족 명문가 출신으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을 비판하였다. 사실 그는 원래 민중의 이익에 주목하거나 민주정을 적극 옹호한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귀족정으로의 복귀를 꿈꾸면서 참주정 타도에 앞장섰고, 이 과정에서 민중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당시 참주정 하에서 증폭된 민중의 저항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권의 수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족제 개편과 도편추방제로 상징되는 아테네 민주정의 눈부신 성취 그 이면에는 이처럼 민중의 정치적 자각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압력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 사카 포메로이, 『고대 그리스』 - ②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침공, 폴리스 연합 결성, 마라톤 전투·테르모필레 전투· 해전 : 동맹 결성(기원전 477) ③ 시대(기원전 457~기원전 429, 동맹의 맹주, 제한적 직접 민주정, 공직자 추천· 시행) 은/는 처음으로 배심원에게 를 지급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키몬의 부유함에 대항해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키몬이 제왕과 같은 부를 과시하며 먼저 공공 봉사를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④ 전쟁(폴리스 간 대립, 기원전 431~기원전 404)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를 스트라테고스(장군)로 임명하고 대규모 함대를 급파하였다. 페리클레스의 반격으로 주요 군사 거점을 상실하는 등 타격을 입은 스파르타의 군대는 아티카 지방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아테네인들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많은 나무를 벌목하자 온 땅은 메말라 가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크게 낙담한 시민들은 페리클레스가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폴리스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페리클레스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소한 혐의를 트집 잡아 벌금을 그에게 부과하였다. 곧이어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조속한 종전(終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강화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전세가 더욱 기울어지자, 아테네인들은 페리클레스를 다시 스트라테고스로 선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역사 총서』 - : 의 패권 장악 ⇨ 테베 시대 ⇨ 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지배 • 다신교, 인간 중심, 소피스트·소크라테스, 호메로스·헤시오도스, 헤로도토스·투키디데스의 『역사』, 조화와 균형의 미(파르테논 신전)

02 고대 지중해 세계	알렉산드로스 제국 (기원전 336~) • 동방 원정(기원전 334~) : [] 전투·가우가멜라 전투[⇄ 다리우스 3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멸망], 이집트 정복, []강 유역까지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형성 ⇨ 알렉산드로스 사후(기원전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로 분열 ⇨ 로마에 정복 • 페르시아의 [] 도입, [] 정책[세계 시민주의, [] 건설(그리스인 이주), 페르시아인과의 혼인 장려] • [] 문화(그리스·오리엔트 문화 융합) → 인도 쿠산 왕조의 [] 미술에 영향 • 라오콘 군상·밀로의 비너스, 에피쿠로스학파·스토아학파, 기하학(에우클레이데스)·물리학·의학 발달, 무세이온(Mouseion, 학당) 건립
02 고대 지중해 세계	로마 (기원전 8세기경~) • 기원전 8세기 중엽 도시 국가로 수립 ① 왕정 ⇨ 귀족 공화정(기원전 509~) ⇨ 공화정의 민주화 : [] 제도(기원전 494, 집정관·원로원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평민회 설치(기원전 472) : 12표법(로마 최초의 성문법, 기원전 450) → 리키니우스법([] 중 1명의 평민 선출, 기원전 367) → []법(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법률상 귀족과 평민의 권리 대등, 기원전 287) ↳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기원전 201) ② 이탈리아반도 통일(기원전 272) ⇨ [] 전쟁 승리[⇄ [], [] 패권 장악, 기원전 264~기원전 146],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복 ③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경영 확대로 인한 자영농 몰락 ④ [] 형제의 개혁([] 제정(유력자의 공유지 과다 점유 제한, 자영농 육성 시도), 곡물법 제정(빈민들에게 안정적인 곡물 제공), 기원전 2세기) :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 → 귀족파(별족파, 옴티아테스)와 평민파(포풀라레스)의 권력 투쟁 ⑤ 스파르타쿠스의 난[카푸아의 검투사 노예, 자유를 외치며 봉기, 기원전 73~기원전 71] → 크라수스의 진압 ⑥ 제1차 삼두정치([]·폼페이우스·크라수스, 기원전 60~기원전 45) ⇨ 제2차 삼두정치([]·안토니우스·레피두스, 기원전 43~기원전 31) ⇨ [] 해전(아그리파의 활약, 옥타비아누스의 주도권 장악, 기원전 31)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유력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침탈하려는 열망에 빠져 각자의 권력을 균등하게 분점하는 데 합의하였다. …… 그리하여 먼저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을 차지하였고, 크라수스는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였으며, 폼페이우스는 이베리아반도를 손아귀에 넣었다. 이로써 세상의 임페리움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 세 실권자 간의 연대에 의해 장악되었던 것이다. - 플로루스, 『로마사 개요』 - • [] 시대(기원전 27~) ①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로 군림, [] 칭호 사용,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 칭호 부여 ② Pax Romana[로마의 평화 시대(기원전 27~기원후 180), 5현제 시대(네르바 → 트라야누스 → 하드리아누스 → 안토니누스 피우스 → 아우렐리우스)] ③ 군인 황제 시대[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게르만의 침입, [] 제도(부자유 소작농인 콜로누스 이용) 확산, 235~284] ④ 로마의 중흥 노력 :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4분할 통치, 전제 군주제 강화) ⇨ 갈레리우스의 관용령(311) ⇨ [](밀라노 칙령(~리키니우스, 313), 니케아 공의회(325), [] 천도(330)) ⇨ [] 황제(크리스티안의 [] 선포) ⇨ 분리(서로마 : 동로마, 395) • 실용적 문화(법률,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 판테온), 스토아 철학, 『로마사』(리비우스)·『영웅전』(플루타르코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03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게르만의 이동(4C 후반)	• 발트해 연안(원주지), 훈족 압박 → 프랑크족, 서고트족, 동고트족[동고트 왕국 성립(이탈리아반도, 493)], 반달족 등의 이동[반달 왕국 수립(카르타고, 435)]	
프랑크 왕국		•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481), 갈리아 중부까지 영토 확장(486),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496)
		• 궁재(宮宰)로 실권 장악, 프린스의 칭호, []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 왕조) 격퇴(732)
		• [] 왕조 개창(교황의 지지, 킬데리쿠스 3세 폐위, 751), 롬바르드 정벌, [] 지방의 교황청 기증(756)
	(재위 768~814)	•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수도 아헨,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 차지, 롬바르드 왕국 정복, 이베리아반도 진출, 동유럽의 작센족 정복(교회를 세워 크리스토포 전파), []로 대관(교황 레오 3세, 아우구스투스의 칭호, 800) • [](궁정 학교 설립, 학문과 라틴 고전 연구 후원) ↳ 로마 문화·크리스토포·게르만 문화의 융합,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
	분열	• 카롤루스 대제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 → [] 조약(843)·메르센 조약(870) 체결 → 동프랑크[오토 1세, 레히펠트 전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962)]·서프랑크[→ [] 왕조(987~1328)]·중프랑크
노르만의 이동(9C 후반)	• 스칸디나비아 지방(원주지), 바이킹,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 노브고로드 공국·키예프 공국·노르만디 공국(롤로, 911)·[] 왕조(윌리엄 공, 1066)·시칠리아 왕국,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건국	
봉건 사회의 형성	① 배경 : 프랑크 왕국의 분열, 노르만족·마자르족·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극심한 혼란 → 전사 계급의 성장과 예속 농민의 발생 ② 특징 : 정치적으로 주종제, 경제적으로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 형성 ③ 주종제 : 주군(봉신에게 봉토 수여,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 서약 및 군사적 봉사, [] 계약 관계), 봉신의 불입권(Immunity) 행사 ④ 장원제 : 토지[경작지(영주 직영지·농민 보유지, 삼포제로 경작), 공동 방목지, 삼림 등]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영주의 직영지 경작, 지대 및 각종 세금 부담,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	
크리스토포의 성장과 교황권	교구의 변화	• 5대 교구(로마·비잔티움·안티오크·예루살렘·알렉산드리아) → 2대 교구(로마·비잔티움)
	교회의 성장	•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주교·사제에 이르는 성직 계서제 구축
	동서 교회 분열	•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 726) → 분열(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교회 : 비잔티움 황제의 그리스 정교회, 1054)
	교회의 세속화	• 세속 권력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 [] 운동(교회 정화, 10세기 초 클뤼니 [] 중심)
	[]	• []을 둘러싼 교황(그레고리우스 7세)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인리히 4세)의 대립 → 교황 훈령(1075) → 교황의 황제 파문(1076) → 황제가 카노사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년) → 황제의 교황 파문(1080)
	교황권의 성장	• [](교황 칼리스투스 2세~하인리히 5세,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서임권 투쟁의 일단락), []년) •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1216) 때 교황권의 절정('교황은 해, 황제는 달')
중세 서유럽의 문화	• 교부(敎父) 철학[아우구스티누스(354~430), 『신국론』, [] 철학[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신앙과 이성의 조화, 1267)] • 교회와 수도원 중심의 교육, 대학 발전[파리 대학(교수 조합)·볼로냐 대학(학생 조합) 등, 교회나 세속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 • 기사도 문학(『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 바실리카 양식(4세기) → [] 양식(11세기, 돔·아치, 피사 성당) → [] 양식(12세기,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 쾰른 성당·샤르트르 대성당)	

04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 황제 교황주의(황제가 교회 지배, []), 수도 [](동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비잔티움 제국의 변천	① [] 황제[재위 527~565, 벨리사리우스, [](이탈리아) 왕국·반달 왕국 정복, 『[] 법전』 편찬(529~), [] 성당] ② 7세기 군관구제[](스트라테고스)·둔전병제 실시, 시리아·이집트 등 상실(∴ [] 페르시아의 압박), 아르무크 전투(⇄ 칼리프 우마르, 636) ③ 11세기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에게 군사 지원 요청(∴ []의 공격) → [] 전쟁 발발(1096) ④ 15세기 [] 제국 술탄 [] 2세의(재위 1444~1446, 재위 1451~1481)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으로 멸망([]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융합, []어(공용어), 그리스 고전의 연구와 보존([]에 영향) • [] 양식[웅장한 돔·모자이크 벽화, 아야 소피아 성당(537)], [] 문화권 형성에 기여[키릴 문자, 키이우의 성 소피아 성당]

05 봉건 사회의 변화	
[] 전쟁 (1096~1270)	배경 • 삼포제 확산 등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인구 증가 → 유럽의 대외 팽창 움직임 • 셀주크 튀르크의 [] 점령(1071)과 비잔티움 제국 공격 →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원 요청 → [] 공의회에서 전쟁 호소(교황 우르바누스 2세, []년)
	전개 • 제1차[] 왕국 건설, '성묘의 수호자' 고드프루아, 1096~1099], 제3차[영국 리처드 1세·프랑스 필리프 2세 ↔ 아이유브 왕조, 평화 조약 체결, 1189~1192], 제4차[필리프 2세, 베네치아 상인의 개입, [] 점령, [] 수립, 1202~1204]  [] 로마 가톨릭교 세력권 → 제1차(1096~1099) [] 그리스 정교 세력권 ⇨ 제4차(1202~1204) [] 이슬람교 세력권
	영향 • 정치[교황권 약화, 제후와 기사 계층 몰락, 왕권 강화], 경제[지중해 교역·동방 교역 활발 → 이탈리아 도시 번영], 문화[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의 서유럽 유입]

05 봉건 사회의 변화		
교역의 확대	- 원거리 교역과 [] 발달 - 북유럽 교역권(뤼베크·함부르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여 [] 결성, 북해와 발트해 무역을 주도, 1241) 내륙 교역권(상파뉴 정기 시장, 지중해와 북유럽 교역권 연결) 지중해 교역권(이탈리아의 베네치아·피렌체 중심)	
도시의 성장	[] 획득(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 확보) → 독자적으로 도시 운영 - 길드 조직[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생산과 상업 활동 통제, 상인 길드·수공업 길드(장인 : 직인 : 도제)]	
장원제의 해체	- 화폐 경제 발달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 지대 요구 → 농노의 지위 향상 []의 유행(1347~) → 노동력 감소 → 농민의 임금 상승 →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 점차 장원 해체 -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 []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 → 자크리의 난(플랑드르, []년), 와트 타일리의 난(존 볼의 후원, []년)	
교황권의 쇠퇴	- 십자군 전쟁 실패로 신앙심 약화와 교황의 권위 약화 [](1309~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 필리프 4세의 최초 [] 소집(1302) → 아나니 사건(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 1303) → 교황청(교황 클레멘스 5세)이 []으로 옮겨짐 - 교회의 대분열([]~[]년) : 로마와 아비뇽을 중심으로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 피사 공의회(1409) 이후 세 명의 교황이 대립 - 교회 개혁의 움직임 : 위클리프(1320~1384), [](1372~1415)의 교회 비판(『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 공의회(1414~1418)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 후스 화형(1415), 단일 교황 마르티노 5세 선출([] 교황의 정통성 인정)	
왕권의 강화	-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교황권 쇠퇴, 도시 상공업자들의 협조(국가 재정 지원, 국왕의 관리로 봉사, 신분제 의회 참여) - 국왕이 상비군과 관료제 도입,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	
유럽 각국의 변화	영국	- 존왕의 [] 승인(1215) [] 전쟁[에드워드 3세(재위 1327~1377),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 [] 지방의 영유권 분쟁, 프랑스 내 영국 왕령을 둘러싼 대립, 1337~1453] [] 전쟁(랭커스터 가문 ⇄ 요크 가문, 1455~1485) →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개창(1485)
	프랑스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 [] 전쟁(샤를 4세의 죽음, 필리프 6세,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승리)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독일 지역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목상 통치, 봉건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대공위 시대(1256~1273), 황금 문서(카를 4세, 1356)
	[]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이베리아 반도	- 크리스토티아 재정복 운동(레콘키스타)을 통해 아라곤, 카스티야 성립 → [] 왕국 탄생(이사벨 1세·페르난도 2세, 1469) → 이슬람의 근거지인 그라나다 왕국([] 왕조) 정복(1492) → 레콘키스타 완료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의 성장(1143~)
	러시아	이반 3세(몽골 축출, 1480), 이반 4세(차르 칭호, 성 바실리 성당, 1561)

06 르네상스(Renaissance)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배경	•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잔존, [] 제국의 많은 학자 유입, []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군주들이 문예 활동 장려
	특징	•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 [](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
	인문주의자	• 페트라르카(서정시, 『칸초니에레』), [](『데카메론』, 1349~1353), [](『군주론』, 1513)
	미술	•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모나리자), 미켈란젤로(다비드상), 라파엘로(아테네 학당)
	건축	• 르네상스 양식 발전[열주와 돔 강조, [] 성당(산피에트로 대성당, 1506)]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배경	•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
	특징	•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티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에 영향
	인문주의자	• [](『우신예찬』, 1511), 토머스 모어(『유토피아』, 1516)
	미술	• 반에이크 형제(유화 기법 개발), 브뤼헬(서민의 생활 모습 표현, 홀바인(초상화) 등
	국민 문학	• 셰르반테스(‘레판토의 외팔이’, 『돈키호테』, 1605),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햄릿』 등, 1564~1616)
과학 기술의 발달	배경	•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 기술의 개량
	천문학	•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1543)
	사회 변화	• 화약(봉건 기사와 몰락 촉진), 나침반(원거리 항해에 이용,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르네상스·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 1455)

07 종교 개혁

[] (1483~1546)	•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한 [] 판매 • 「95개조 반박문」 발표(비텐베르크, 1517) → 루터파(제후의 지지)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슈말칼덴 전쟁(1546~1555)] → [] 화의(루터파 인정, 1555)
[] (1509~1564)	• 프랑스 출신, 제네바에서 활동, 『크리스티교 강요』(예정설 주장,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 강조, 1536) •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 → 영국(청교도), 프랑스(위그노), 네덜란드(고이센), 스코틀랜드(장로파) 등지로 전파
[]의 종교 개혁	• 정치·경제적 동기, 헨리 8세(재위 1509~1547)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 • []을 통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1534) → 수도원 해산, 교회의 토지·재산 몰수 • 엘리자베스 1세의 [] 반포(1559) → 영국 국교회 확립(로마 가톨릭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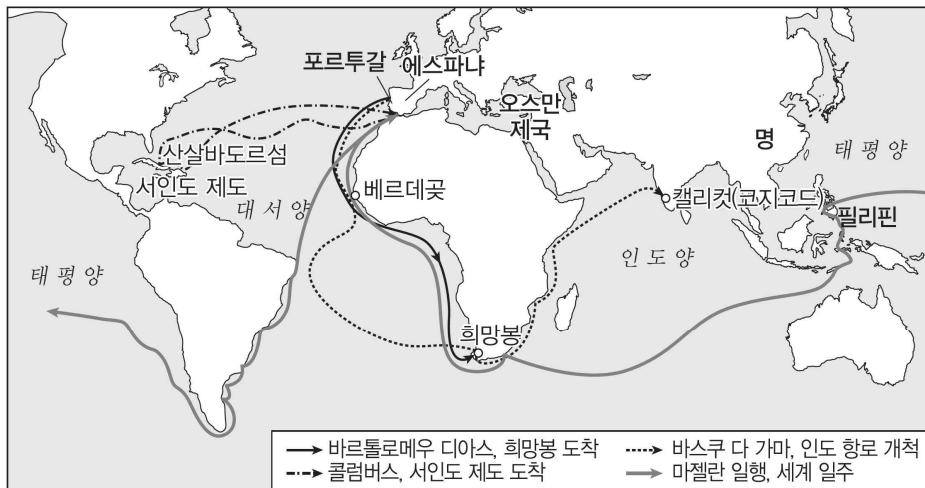
07 종교 개혁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 설립(에스파냐 신부 로올라, 1534)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선교 활동 전개 • 공의회(1545~1563) : 라틴어 불가타(별게잇) 성경의 권위 인정,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 신교 확산 방지 : 교회의 폐단 시정 노력,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예수회 정식 승인, 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등)
종교 전쟁	배경
	•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구교)의 대립 격화
	•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 → 고이센(칼뱅파 교도) 주도의 독립 전쟁(1568~1648)
	프랑스
	• 위그노 전쟁(1562~1598) → 칙령[앙리 4세(재위 1589~1610),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 년]
	독일 지역
	• 30년 전쟁(1618~1648)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조약 체결(인정, ·스위스 독립, 년)



베스트팔렌 조약(1648)

1. 칼뱅파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2. 1624년 현재로 신교이든 구교이든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칼뱅파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4. 각 제후는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주권을 행사한다.
5.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로렌을 차지한다.
6.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08 유럽 세계의 팽창			
신항로 개척	배경	• 동방에 대한 호기심 자극(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동방 산물(향신료, 비단 등)에 대한 욕구 증대, 오스만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 필요, 종교적 동기(『맨더빌 여행기』) • 조선술, 항해술 발달로 원양 항해 가능	
	주도	• 포르투갈·에스파냐(∴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	
		• 바르톨로메우 디아스(희망봉 도착, 1488), (인도 항로 개척, 1498) • 호르무즈, 고아, ,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향료 무역 전개	
		• (이사벨 1세의 후원, 대서양 횡단, 서인도 제도 도착, 1492), 아메리고 베스푸치(서인도 제도의 신대륙 확인 → 아메리카, 1502), (최초의 세계 일주, 필리핀 막탄섬에서 사망, 1519~1522) • 은광 개발(1545)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변화	결과	① 교역망의 확대 :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 ②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 삼각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교역의 발달(무역 성행), 대서양 교역을 통해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아메리카 은의 매개체) ③ 금·은 등 유럽 유입 → 유럽 물가 급등(가격 혁명) → 유럽의 경제 성장(산업 혁명,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문명	• 멕시코 고원 일대, (수도), 그림 문자 사용,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1)	
	문명	• 안데스 고원 일대, (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새끼줄 매듭(키푸)으로 정보 교환, 마추픽추(고산도시) •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	
	아메리카의 변화	• 원주민의 수 급감,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원주민의 노동 및 아프리카인의 노예 노동 이용, 사탕수수·담배 등 재배)	



㉠ (가) = _____, ㉡ (나) = _____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전장의 무대는 유럽에만 국한되진 않았다. 특히 바타비아 등 자와섬을 지배한 ㉠(가)은/는 마닐라 등지를 오가는 선박들의 통행을 통제하며 남아메리카의 아카폴코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은을 싣고 출항한 ㉡(나)의 검은 색 선박*들을 포획하였다. 이에 ㉡(나)은/는 마닐라 등 필리핀 일대의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 포대를 설치하여 군사적 방어망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 이 과정에서 ㉠(가)의 일부 상인들은 데지마의 상관, 바타비아 등지를 은밀하게 오가면서 주요 해역의 전략 정보들을 수집하던 중 마닐라만 전투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당시 루손섬 등 필리핀의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극적으로 사그라들었다. 11월경 본국에서 급파된 전령이 바타비아의 총독에게 전달한 내용은, 최근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약 30년간 지속된 전쟁이 종식되었으니, 이제 양측은 일체의 교전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은 색 선박 : 대형 범선의 일종인 갈레온을 의미함

09 유럽 세계의 팽창		
절대 왕정	성립 과정	16~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 -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
	기반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정비, _____ 유행, _____ 경제 정책(국가의 간섭과 통제, 관세 장벽)
서유럽의 절대 왕정 (16~17세기)	_____	_____ (재위 1527~1598) : 무적함대, _____ 해전(1571), 포르투갈 병합(1580), _____ 북부 7주의 독립(1581)
	네덜란드	독립 전쟁(from _____, 1568~1648), 동인도 회사 설립(1602), 물라카 확보(from _____, 1641)
	영국	_____ (재위 1558~1603) : _____ 격파(칼레 해전, 1588), _____ 설립(1600), 모직 공업 육성
	프랑스	_____ (재위 1643~1715) : 프롱드의 난 진압(마자랭), 시민 계급을 행정 관료로 편입, 왕권신수설 신봉(보쉬에), 태양왕 자처, 중상주의 정책(_____ 등용), _____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 _____ 궁전 건축, _____ 왕위 계승 전쟁
동유럽의 절대 왕정 (17~18세기)	특징	도시와 상공업 발달 부진, 시민 계급 성장 미약, _____ 강화, _____ 전제 군주 표방
	프로이센	_____ (재위 1740~1786) : _____의 영향(볼테르와 교유,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산업 장려, 농노제 유지, 상수시 궁전 건립(1747)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오스트리아·프랑스·러시아 ⇄ 프로이센·영국, 1756~1763) 승리 → _____ 차지 : _____ 분할(with _____·러시아, 1772)
	러시아	_____ 대제(재위 1682~1725) : 서구화 정책 표방(서유럽의 기술과 문물 수용, 유럽의 식문화와 복장 양식 도입) : _____ 건설·천도(‘유럽의 빛이 들어오는 창’, 1703 → 1713), : _____ 진출[_____ 전쟁(⇄ 스웨덴, 1700~1721) 승리], _____ 조약 체결(청의 강희제, 국경선 확정, 1689) _____ (재위 1762~1796) : ‘황후(표트르 3세)에서 황제로’, 계몽 전제 군주 자처, 농노제 강화, 흑해 진출·알래스카 획득, _____ 분할 점령

☞ (가) = _____, (나) = _____

나의 부친께서는 종교적 탄압을 피해 동지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하였다. (가)의 국왕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여 우리 위그노의 가산을 압류하고 교역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부친께서는 많은 노력 끝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농장주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견고한 위그노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 한편 우리가 정착한 지역을 다스리던 (나)은/는 국교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위그노에 대한 종교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나)은/는 식민지 의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자치를 용인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전쟁 이후 재정난에 직면한 본국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여 각종 간섭 조치를 본격화하자, 우리는 위그노의 소중한 옛 전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결사체를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0 근대 인식의 발전			
과학 혁명	배경	•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 수용,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한 도구(현미경 등) 발명	
	의미	• 16~17세기에 걸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천문학	• 케플러(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함을 밝힘, 지동설의 수정·발전, 1609) • 갈릴레이[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 입증(1609), 낙하 실험(새로운 물리 법칙 발견)] • [] [만유인력의 법칙(지동설 증명), 『프린키피아(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1687),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의학	• 찰스 1세(재위 1625~1649)의 주치의인 하비의 혈액 순환론 연구(『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 1628)	
	근대 철학의 발전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확산, 경험주의 철학(베이컨)과 합리주의 철학(데카르트)	
사회계약설	배경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산	
	의미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등장했다고 주장 • [] (natural law) 사상을 토대로 확산	
	대표 인물	홉스	•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상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 절대 왕정 옹호, 『리바이어던』(1651)
		[]	• 저항권, 영국의 명예혁명 정당화, 미국·프랑스 혁명에 영향, 『시민 정부론』(1689·1690)
[]		• 일반 의지의 형성, 인민 주권의 원리 제시, 프랑스 혁명에 영향, 『사회계약론』·『에밀』(1762)	
[]	배경	• 16~17세기 과학 혁명의 성과와 사회계약설의 등장	
	내용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습 타파를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음	
	계몽사상가	• 몽테스키외(『법의 정신』(1748), 삼권분립 주장, 미국 연방 헌법에 영향), [] [계몽 전제 군주제에 입각한 개혁 지지,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강조], 디드로·달랑베르 등(『[]』 편찬(1751~1772), 계몽사상 확산에 공헌)	
	의의	•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이념 형성에 영향	
자유 방임주의 경제 이론	주장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의 『국부론』(‘보이지 않는 손’,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1776)	

『백과전서』의 편찬과 계몽사상

『백과전서』의 목적은 지상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집성하는 것이다. …… 그럼으로써 앞 세대의 업적이 후세대에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손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미덕을 갖추고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정부의 위대한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통치자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권력을 부여한 시민 헌법은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 법칙들은 어떤 형태의 정부에서도 국가 복지라는 대의를 그 목적으로 정해 왔다. 국민에게 최고의 행복은 바로 자유다. …… 사람들은 계몽되어야 하며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 …… 자유는 하늘의 선물이며, 모든 개인은 이성을 향유하며 자유를 즐길 권리를 갖는다.

- 디드로, 『백과전서』 서문 -

디드로, 달랑베르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백과전서』는 당시의 계몽사상을 비롯한 철학·과학 지식을 집대성하였다. 『백과전서』는 기존의 정치적·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발행 금지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유럽 전역으로 전해져 계몽사상을 확산시켰다.

11	17~18세기의 문화		
	건축	17세기	• 바로크 양식(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 궁전(루이 14세)
		18세기	• 로코코 양식(섬세하고 우아한 미 추구), [] 궁전(프리드리히 2세, '근심 없는 궁전', 포츠담, 1747)

12	영국의 시민 혁명		
	혁명 전의 영국 사회	• 젠트리 등장(중소 지주층, 인클로저 운동 주도, 대부분 청교도, 사회 지도층 형성), 상공업의 발전과 시민 계급 성장 → 의회의 다수 차지 • [] (재위 1603~1625) : 스튜어트 왕조 개창, 전제 정치, [] 고집, 의회 정치의 전통 무시, 국교회 강화와 청교도 탄압	
	[] 혁명 (1642~1649) 	• [] (재위 1625~1649) ① 프랑스·에스파냐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 → 의회의 [] 제출과 국왕의 승인(1628) → 의회 해산(1629) ② 스코틀랜드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재소집(1640) → 의회의 과세 요구 거부 → [] 의 의회 무력 탄압 ③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발생(1642) → [] (1599~1658)이 이끄는 의회파 승리 → [] 처형과 [] 수립(1649) • []의 통치(1649~1658) ① 아일랜드 원정(1649), 스코틀랜드 원정(1650), [] 제정([] 견제 목적, 1651) ② [] 취임(1653),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금욕주의적 독재 정치 강화 → 사후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 → 왕정복고(1660)	
	[] 혁명 (1688~1689)	• [] (재위 1660~1685)의 가톨릭교도 우대 정책 : 의회의 대응[] 제정(1673), 인신보호법 제정(1679)], 의회의 분화[토리당(국왕 옹호) : 휘그당(의회 존중), 1678~1681] • [] (재위 1685~1688)의 전제 정치 강화 : 의회 휴회, []을 무시하고 비국교도의 공직 임명[공직 취임 시 화체설(化體說) 교리를 부정하는 선서 폐지] • 의회의 [] 폐위(1688) → 메리·윌리엄 공동 왕 추대 : 의회가 제출한 [] 승인(1689), '왕이 의회 속에 있다.'라는 전통 수립, 의회 중심 []의 토대 마련 	

▶ []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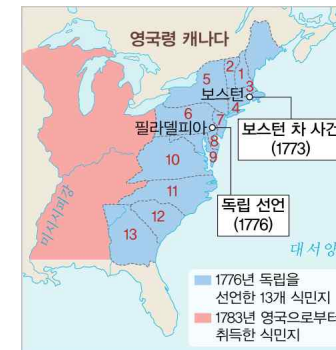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된 찰스 1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땅의 법에 의해 제한적 통치권을 위임받았고, 위임, 선서, 지위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인민의 선과 이익을 위해, 그리고 권리와 자유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는 무제한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 왕국의 근본적 헌정으로 최근 의회에서 보존되어 온 인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불만에 대한 시정의 근거를 무위로 만들려는 사악한 계획을 가졌다. 찰스 1세는 이러한 그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과 추종자들의 사악한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반역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현 의회와 인민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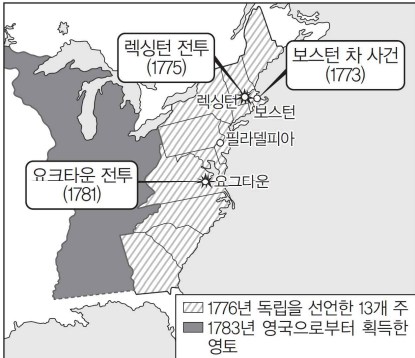
▶ [] (1689)

-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라는 주장은 위법이다. → **의회의 입법권 확인**
-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회의 과세 승인권 규정**
-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13 혁명 이후의 영국	
앤 여왕 (재위 1702~1714)	• 에스파냐와 왕위 계승 전쟁(1701~1713)에서 승리 • 스코틀랜드 병합 → 브리튼 섬을 통합한 연합 왕국() 수립(1707)
조지 1세 (재위 1714~1727)	• () 왕조 개창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아래 () 시행

14 미국의 시민 혁명					
17~18세기의 북아메리카	<table> <tr> <td>17세기</td><td>• 종교의 자유(청교도)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버지니아주(1607)]</td></tr> <tr> <td>18세기</td><td>•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조지아주(1733)] → 독자적인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td></tr> </table>	17세기	• 종교의 자유(청교도)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버지니아주(1607)]	18세기	•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조지아주(1733)] → 독자적인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
17세기	• 종교의 자유(청교도)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버지니아주(1607)]				
18세기	•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조지아주(1733)] → 독자적인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				
혁명의 발발	① 영국의 () 정책 강화[· 7년 전쟁(1756~1763)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 : () 부과[by 조지 3세(재위 1760~1820), 1765] : 타운센드법(종이·유리·차 등에 대한 수입세 신설, 1767~1770) ② 식민지의 납세 거부 운동 전개 :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차(茶) 세만 남기고 철회 ③ () 사건(1773) :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 주도 :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습격 : 영국 정부의 강경 조치(보스턴 항구 폐쇄)				



14 미국의 시민 혁명	
혁명의 전개	① (1774) :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 요구 ② 전투(1775)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 독립 전쟁 발발 ③ (1775~1781) : 대륙군 창설,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 공포(천부인권·주권재민·저항권 사상, 1776년 7월 4일) ④ 초반 영국의 우세 : 새러토가 전투에서 대륙군 승리(1777) : [루이 16세(재위 1774~1792), 1778]·에스파냐 등의 지원 ⑤ 전투 승리(1781) : 조약(1783) → 13개 식민지(공화국) 독립 
아메리카 합중국 수립	• 필라델피아 연방 회의 → 제정(연방주의·삼권분립, 1787) → 연방 정부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 행사 • 워싱턴을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재임 1789~1797)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미국 혁명과 대륙 회의

(가) 지난번 전쟁(7년 전쟁)이 끝난 이후 영국 의회는 아메리카 인민을 법률로 속박할 권한이 있다고 당당히 주장하면서 어떤 법률로는 명시적으로, 또 다른 법률로는 암묵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다. …… 아메리카인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법률과 조치들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의 동포 신민이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자의 행복과 번영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희망에서 현 단계에서는 평화적 정책만을 추구하기로 결의한다.

- 제1차 대륙 회의 선언과 결의 -

(나)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든 주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한다. 이 모든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권리에 의거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영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 제2차 대륙 회의의 독립 선언문 -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빚어진 영국 정부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갈등 속에서 대륙 회의가 개최되었다. (가)에서 중상주의적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던 대륙 회의는 영국의 강경 정책 속에서 렉싱턴 전투가 발발하자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나)의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5	프랑스의 시민 혁명							
	혁명의 배경	• []의 모순(절대 왕정, 가톨릭교회, 신분제를 토대로 사회 유지) • 시민 계급 성장 → 계몽사상(루소) 수용 • 정부 재정 위기(미국 혁명 지원)						
	혁명의 전개①	<table><tr><td>발발</td><td> • [] 소집[루이 16세, 제1·2신분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1789. 5월] → 표결 방식을 둘러싼 신분 간 대립 → [] 결렬 → 제3 신분 대표들의 국민 의회 구성 → []의 서약(1789. 6월) → 루이 16세의 국민 의회 탄압 • [] 습격(1789. 7월 14일) → 혁명의 지방 확산, 농민들이 귀족들을 공격하고 장원 문서 소각 </td></tr><tr><td>[]</td><td> • [] 선언(8월 법령, 1789. 8월)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발표(1789. 8월)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 바렌 도주 사건(1791. 6월) → [] 헌법(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제정 </td></tr><tr><td>[]</td><td> • [] 헌법에 따라 소집(1791. 10월), 지롱드파(니콜라 드 콩도르세, 자크 피에르 브리소)의 주도권 장악 •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 → [] 발발(1792. 4월) •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 [] [파리 민중(상켈로트)의 킬리리 왕궁 습격, 1792] → 루이 16세 퇴위 공포(1792. 8월) </td></tr></table>	발발	• [] 소집[루이 16세, 제1·2신분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1789. 5월] → 표결 방식을 둘러싼 신분 간 대립 → [] 결렬 → 제3 신분 대표들의 국민 의회 구성 → []의 서약(1789. 6월) → 루이 16세의 국민 의회 탄압 • [] 습격(1789. 7월 14일) → 혁명의 지방 확산, 농민들이 귀족들을 공격하고 장원 문서 소각	[]	• [] 선언(8월 법령, 1789. 8월)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발표(1789. 8월)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 바렌 도주 사건(1791. 6월) → [] 헌법(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제정	[]	• [] 헌법에 따라 소집(1791. 10월), 지롱드파(니콜라 드 콩도르세, 자크 피에르 브리소)의 주도권 장악 •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 → [] 발발(1792. 4월) •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 [] [파리 민중(상켈로트)의 킬리리 왕궁 습격, 1792] → 루이 16세 퇴위 공포(1792. 8월)
발발	• [] 소집[루이 16세, 제1·2신분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1789. 5월] → 표결 방식을 둘러싼 신분 간 대립 → [] 결렬 → 제3 신분 대표들의 국민 의회 구성 → []의 서약(1789. 6월) → 루이 16세의 국민 의회 탄압 • [] 습격(1789. 7월 14일) → 혁명의 지방 확산, 농민들이 귀족들을 공격하고 장원 문서 소각							
[]	• [] 선언(8월 법령, 1789. 8월)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발표(1789. 8월)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 바렌 도주 사건(1791. 6월) → [] 헌법(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제정							
[]	• [] 헌법에 따라 소집(1791. 10월), 지롱드파(니콜라 드 콩도르세, 자크 피에르 브리소)의 주도권 장악 •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 → [] 발발(1792. 4월) •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 [] [파리 민중(상켈로트)의 킬리리 왕궁 습격, 1792] → 루이 16세 퇴위 공포(1792. 8월)							
	혁명의 전개②	• [](1792. 9월~1795. 10월) : [] 선포(제1공화정, 1792. 9월), 루이 16세 처형([]년 1월), 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公安위원회 설치(1793. 4월) : [] 헌법[공화제·보통선거제 등 규정, = 자코뱅 헌법, 1793. 8월] • 자코뱅파의 권력 장악과 [] : [](1758~1794), 혁명 재판소·공안위원회 강화,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 당통 처형, 반혁명 세력 제거 • []의 반동(1794. 7월) : []에 대한 반발, 온건 공화파 주도의 쿠데타, [] 처형, [] 헌법(공화력 3년 헌법) 제정 • [](1795~1799) : 총재(5인) 집단 지도 체제, []의 이탈리아 원정(1796)·이집트 원정(1798) • [](1769~1821) : 브뤼메르 18일 쿠데타(1799. 11월) → 총재 정부 전복						
	혁명의 의의·영향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 → 시민 사회의 토대 마련 • 자유, 평등, 우애(박애)의 정신 확산 →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1789년 5월 5일)

삼부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래로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삼부회의 출석 요구서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렸음에도, 나는 이 왕국을 견인할 새로운 힘을 찾기 위해 옛 관례를 회복하였습니다. 내가 왕좌에 오를 때에도 이미 엄청났던 국가의 부채는 그동안 더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명예로운 전쟁이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증세는 불가피한 결과였고, 세금의 불평등한 분배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개혁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온건한 의견으로 단합해서 서둘러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론은 완전히 그릇된 길로 갈 것입니다.

16	시대	
	(1799~1804)	• 대프랑스 동맹 와해[오스트리아 격파(마렝고 전투, 뤼네빌 화약, 1801), 영국과 휴전(아미앵 화약, 1802)]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국민교육 제도 정비,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1804~1815)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1세, 노트르담 대성당) • 해전 패배(⇨ 영국의 넬슨 제독, 1805)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1805) → 해체(1806) → 결성(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로이센 왕국, 헤센 다름슈타트 대공국을 제외한 모든 독일 영방 국가가 가맹, 1806~1813)
	몰락	• (베를린,)과 통상 금지, 1806) → 킬지트 조약(~ 프로이센 ~ 러시아, 1807) → 원정 실패(1812)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 엘바섬 유배(1814)와 탈출 → 전투 패배(1815) → 세인트헬레나섬 유배 → 사망(1821)
	전쟁의 영향	• 이념 확산(→ 구체제에 대한 저항), 유럽 각국의 고양(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1806)

러시아 원정

11월 6일까지는 날씨가 매우 좋았다. 그리고 작전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추위는 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매일 밤 수백 마리의 말을 잃기 시작하였다. …… 3만여 마리의 말이 불과 수일 내에 쓰러지자 우리 기병은 거의가 도보로 갈 수밖에 없었다. …… 적은 우리 프랑스군에 엄습한 이 가공할 피해를 보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의 카자크 기병들은 종대로 늘어선 우리 군을 포위하고 마치 사막의 아랍인들처럼 약탈해 갔다. 이런 소동 속에 우리 기병은 적병 1개 중대도 돌파할 수 없는 애처로운 존재가 되어갔다.

- 나폴레옹의 서신, 1812 -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17	의 성립과 저항	
(1814~1815)	- 전쟁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 오스트리아 재상 (1773~1859) 주도 → 영국·프로이센·러시아 등 참가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함	
(1815~1848)	- 조약 → (정통주의·복고주의, 왕정복고)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황제가 맡는다. (알렉산드르 1세 주도,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4국 동맹(신성동맹 + 영국)을 통한 체제 유지 노력	
각국의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독일 지역, 학생 조합, 1815)의 활동, 의 봉기(러시아, 입헌군주제 요구, 니콜라이 1세의 진압, 1825), (이탈리아, 민족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 추진, 1806~)의 혁명 운동, 청년 이탈리아당(마치니, 1831)의 혁명 운동 - 독립 전쟁(영국·프랑스·러시아 정부와 유럽 지식인들의 지원, from , 1821~1829), 아이티 공화국 수립(투스생 루베르튀르, from , 1804),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지원, from 에스파냐·포르투갈, 1823) 우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그들이 아메리카의 어느 곳이라도 힘을 확장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럽의 어느 국가에 속하는 현 식민지나 속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해한 바 없으며, 또 앞으로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여 유지하였고, 또 우리가 깊이 고찰한 끝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승인한 정부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목적하에 취하는 유럽 어느 국가의 간섭 행위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	
(1830)	- 왕조의 부활과 루이 18세(재위 1815~1824) 즉위 (재위 ~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 강화 (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 등) - 의 봉기(아돌프 티에르 지도) → 추방 → 를 '시민 왕'으로 추대 → 수립 (가) 정기 간행물 발행의 자유는 정지된다. …… 어떠한 신문, 정기 간행물, 준정기 간행물도 …… 저작자와 인쇄자가 각각 별도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발행될 수 없다. …… 하원 의회를 해산한다. …… 하원의 헌법 수정 권한을 철회한다. - 샤를 10세, 「7월 칙령」, 1830 - (나) 법에 의한 체제는 중단되었고, 이제 힘에 의한 체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는 복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우리의 간행물들을 발행할 것이다. - 파리 언론인 성명, 1830 - -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1831), 청년 이탈리아당 결성(1831),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 등 유럽 각지 자유주의 운동 자극	

18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	
		- 산업화로 [] 계층 성장 ⇔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 부여 [] 1세의 친(親) 부르주아 정책 - 중하층 시민과 [] 주도 →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 [] 봉기 → 임시 정부 수립(삼색기 국기 채택) → []을 대통령으로 선출([] 수립) [] 3월 혁명 발생([] 실각, [] 봉기), 프로이센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전개
		[]의 집권 연장 쿠데타(1851. 12월) → 국민 투표로 제정 부활 승인(1852. 1월) → 황제 즉위([], 1852. 12월) [](재위 1852~1870)의 활동 ✓ [](오스만 지원, 1853~1856), 제2차 [] 전쟁 참여(1856~1860) ✓ 프롱비에르 협정(~ 카보우르, [] 왕국과의 공수동맹, 사보이·니스 할양 약속, 1858) ✓ []에 군사 개입(막시밀리안 초빙, 1863), [] 운하 건설(1869), []과의 전쟁 패배(1870)
	파리 코뮌 ([]년)	[]에 항복한 정부에 맞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자치 정부 수립 -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이 코뮌을 무력으로 진압 → 제3 공화정 수립(아돌프 티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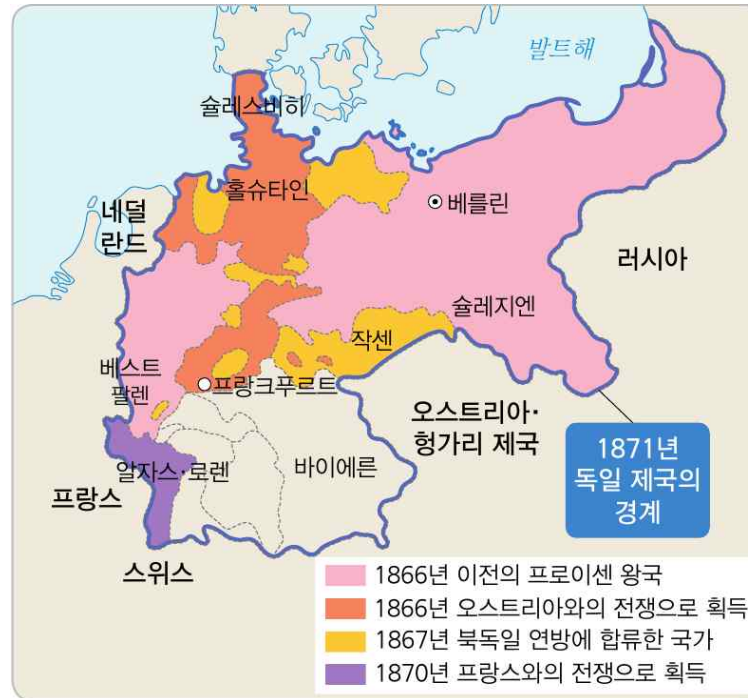
19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특징	[] 주도, 법령의 개폐를 통한 점진적 추진
	종교적 차별 폐지	[] 폐지(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 1673~1828), [] 제정(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대부분 철폐, 1829)
	선거법 개정	- 제1차 선거법 개정([] 폐지, 도시의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 []의 참정권 배제, 1832) :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People's Charter) 발표(1838) : [] 운동 전개(선거법 추가 개정 요구, 1838~1848) - 인민 동지들은 …… 1832년의 선거법 개정안에서 그 치유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기만당했을 뿐이다. ……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의원 선거권을 부여할 것, 앞으로 있을 모든 의원 선거를 비밀 선거로 할 것, 그렇게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어떤 경우에도 1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피선거권자의 모든 재산 자격을 철폐할 것, 의원의 봉직 기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 제2차 선거법 개정(도시 [], 소시민에게 참정권 허용, 1867), 제3차 선거법 개정(농촌·광산노동자들의 선거권 인정, 1884), 제4차 선거법 개정(남자 보통 선거권, 여자 제한 선거권, 1918), 제5차 선거법 개정(만 21세 이상의 보통 선거 허용, 1928)
	경제 개혁	[](1815~1846) 폐지, [](1651~1849) 폐지

20 민족주의의 확산	
의 통일	통일 전 상황 - 교황령, 왕국(1720~1861), 피렌체·베네치아 등 도시 국가, 나폴리·시칠리아 왕국 등으로 분열 -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1805~1872)가 통일 운동 전개 → 실패
	통일 과정 1 왕국 : (1810~1861), 와의 전쟁 승리(· 의 지원, 1859~1860) → 중·북부 지역 통합 2 (1807~1882) : 의용군(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나폴리 왕국 점령 → 왕국에 헌납 어제 나는 국왕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0일에 사르데냐 왕국의 군대가 국경을 넘었고, 며칠 내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국왕이 직접 그의 용감한 군대를 이끌고 도착할 것입니다. 며칠 뒤면 우리의 국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고 절제 있는 모습으로 지금의 임시적인 상태가 차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나폴리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 줍시다. 며칠 안에 이 임시적인 상태는 끝나고, 통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의 나폴리 연설 - 3 왕국 수립(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재위 1861~1878), 수도 피렌체, 1861) ↔ , 공화정 주장
	4 병합(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1866) → 점령(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870)
의 통일	통일 전 상황 을 비롯한 35개의 영방 국가, 4개의 자유시로 분열
	통일 과정 1 주도, 경제적 통합 추구, 1834) 2 [통일 방안 논의, 대독일주의(오스트리아) ⇔ 소독일주의(프로이센), 결렬, 1848~1849] 3 의 프로이센 재상 취임과 철혈 정책(1862) 4 프로이센· 전쟁 승리(북독일 연방 결성, 1867) → 제국 수립(1867~1918) 5 프로이센· 전쟁 승리(남독일 연방 결성, 1870) 에스파냐 국왕 선출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배경으로 가 선전 포고하면서 발발하였다. 스당 전투 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한 프로이센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강화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방을 할양하였다. 6 제정 수립((재위 1871~1888),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황제로 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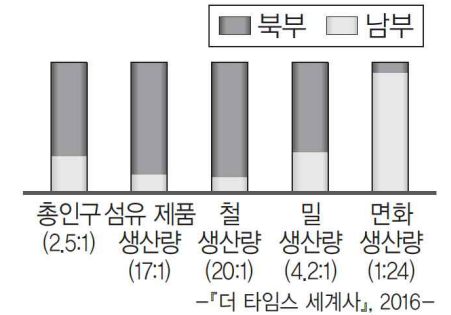
▶ 이탈리아의 통일



▶ 독일의 통일



▶ 미국의 남북 경제 비교



21 미국의 발전		
영토 확장	• 독립 후 서부 개척 등으로 19세기 중엽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	
(1861~1865)	배경	•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격차 심화
	전개	• [] 대통령 당선(1860) → 남부 7주의 연방 탈퇴 → 남군의 섬터 요새 공격으로 전쟁 발발(1861) → [] 선언(1863) → [] 전투(1863) → 북부의 승리(1865)
	전쟁 이후 발전	• 국민적 단합을 이루고 산업 국가로 발전, [] 개통(1869)

북부에 있는 모든 주가 합심하여 노예제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는 연방 정부의 행정을 위임하게 되어 있다. 그는 절반은 노예제를, 절반은 자유를 주장하는 정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믿고, 대중의 마음속에서 노예제가 궁극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선언해 왔다. …… 그러므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민들은 대표자 회의에 모인 대표들을 통해 세계의 지식인에게 우리 취지의 정당함을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이 주와 북아메리카의 다른 주들 사이에 존재해 온 연방은 해체되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탈퇴 선언(1860) -

22 러시아의 발전	
19세기의 상황	차르 전제 정치와 농노제의 지속
니콜라이 1세 (재위 1825~1855)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 1825) 진압 - 전쟁(⇔ 오스만, 1853~1856) 패전 →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좌절
알렉산드르 2세 (재위 1855~1881)	- 개혁 발표(1861)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 …… 농민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다. 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면서 농민들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받고 토지 경작권을 부여할 것이다. - 러시아·튀르크 전쟁 승리(1877~1878) →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중단 - 운동(1873~1875) :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 추진 → 실패 -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암살
알렉산드르 3세	재위(1881~1894), 전제 정치 강화

23 산업 혁명							
배경	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 혁명, 인구 증가 → 상품 수요의 급증 → 중세적 길드 체제에서 선대제·매뉴팩처 체제로 전환						
영국의 산업 혁명 (1768~)	-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 확보, 제2차 운동으로 풍부한 노동력 확보, 철·석탄 등 지하자원 풍부 - 면직물의 수요 증대 → 기술 혁명(방적기·방직기) → 동력 혁명(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1782) → 교통 혁명(증기선(풀턴, 1807), 증기기관차(스티븐슨, 1814)) → 통신 혁명[유선 전신(모스), 무선 전신(마르코니), 전화(벨)]						
산업 혁명의 확산	19세기 전반(프랑스) → 19세기 중후반(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 공업 발달,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 자본가(생산 수단과 자본 소유)와 임금 노동자 등장						
사회 문제 해결 노력	<table> <tr> <td>노동 문제</td><td>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문제 등 → 제정(영국, 장시간 노동 제한과 아동 노동자 보호, 1833) </td></tr> <tr> <td>노동 운동</td><td> - 운동(러다이트 운동, 1811~1817), 운동(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 결성) </td></tr> <tr> <td>대두</td><td> - 공상적 [생시몽·푸리에·오언,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 오언의 협동론(뉴라나크)] - 과학적 [마르크스·엔겔스, 자본가 계급 타도와 노동자들의 권력 쟁취 주장, 공산당 선언(1848)] </td></tr> </table>	노동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문제 등 → 제정(영국, 장시간 노동 제한과 아동 노동자 보호, 1833)	노동 운동	운동(러다이트 운동, 1811~1817), 운동(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 결성)	대두	- 공상적 [생시몽·푸리에·오언,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 오언의 협동론(뉴라나크)] - 과학적 [마르크스·엔겔스, 자본가 계급 타도와 노동자들의 권력 쟁취 주장, 공산당 선언(1848)]
노동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문제 등 → 제정(영국, 장시간 노동 제한과 아동 노동자 보호, 1833)						
노동 운동	운동(러다이트 운동, 1811~1817), 운동(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 결성)						
대두	- 공상적 [생시몽·푸리에·오언,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 오언의 협동론(뉴라나크)] - 과학적 [마르크스·엔겔스, 자본가 계급 타도와 노동자들의 권력 쟁취 주장, 공산당 선언(1848)]						

▶ 아동 노동 문제

가엾은 아이들, 너희는 흑인 노예의 그 안락조차 없이 탐욕의 성채에서 희생당하는구나. 너희는 자유 계약자로 불린다. 그럼에도 탐욕스러운 부모가 필요로 하는 대로, 또 야만적인 노예 감독보다 더 악독한 공장주의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너희는 자랑스러운 자유의 땅, 영국에 살면서도 자신이 노예임을, 흑인 노예가 누리는 그 안락마저 없는 노예임을 깨닫고서 한탄할 뿐이구나.

- 오슬러, 「요크셔 노예제」

24	19세기의 문화	
	사상	• 벤담·밀(공리주의), 리카도·멜서스(고전 경제학), 콩트(실증주의 사회학), 헤겔(변증법), 랑케(실증주의 역사학)
	문예 사조	• 낭만주의[19세기 전반, 계몽사상 비판, 인간의 감정 중시, 바이런·고야(1808년 5월 3일)· 들라크루아 (키오스섬의 학살 , 1824)] • 사실주의·자연주의[19세기 후반, 디킨스·쿠르베(돌 깨는 사람들)]
	과학	• 다윈(『종의 기원』, 진화론 주장, 1859), 멘델(유전 법칙, 1865), 패러데이(전자기 유도 법칙), 파스퇴르(세균학) 등